

9시
/

기 영 삼 선생

기영삼 선생은 1910년에 원동변강 연
해쪽 나호드까지 근방 동호동에서 한생하시
였다. 향촌에서 소학교와 초급을 마감하신다
음 계속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1926년에 다
유지리 촌에 가서 1930년에 고급을 필하였다.
같은해에 원동의 항구도시 울타지위쓰도크 한인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3학년으로 수료하시고 3
학년에서 공부할시 경제 곤란으로 인하여 학습
을 중단하시고 부모들이 살고있는 "신영동" 고향
로 촌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경제난문제를 시대 3학년 을 종회하신 김영삼 선생은 신명동 골호로 (현재 우르베크만에 강레이쿠 된 후 신명거우 "스벨드르브"라고 개칭하였음) 에 돌아와서 초중교원으로 2년간 일하시였다.

김영삼 선생은 2년간 교원직업을 하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분일초도 없지않았다. 그러던 결과 2년간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1934년에 북부 형제들과 어별하고 인제는 사범은 그만두고 러시아 발트 각 회를 걸 러시아 중앙리구 꾸이비넨시 종합기술전문 대학 동력학부 (에너지) 에 입학하였다.

김영삼 선생은 이미 대학에서 공부하신 경험이 있었고 근본 상식이 깊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공학과 우등한 계층에 속하여 최우등생으로 공부하였다. 김선생이 제 5 학년에서 공부할시, 아직 대학에서 졸업생들로 각 지방으로 배령하기 전에, 스벨드르브 골호로 집행위원회는 꾸이비넨 기술종합 전문 대학 지로부외 소련정부 고등교 육성에 관련을 내어 당년에 졸업하게 되는 김영삼은 어생을 향촌 골호로에 파견할것을 요청하였다.

소베트 정부와 대학지로부는 골호로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을 우등한 성적으로 졸업 한 기술과 김영삼씨를 지리 향촌 골호로에 파견하였다.

향촌 골호로 집행위원회에 도착한 김영삼 동력 기사는 골호로 수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수력발전소 위치를 선택하 (며, 수력발전소 설계를 작성하되, 발전소 건설에

오구리는 모든 건설물자들을 나뉘어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1941년 가을에 위임받고 산동북부 수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였던 김영삼 선생은 드디어 한해 반인 1943년 5월에 완공하여 홍천 끝노르 마을에 전기를 끌어 전체 끝노르인들의 환희를 도취했다.

끝노르 마을의 수력발전소 완공물제는 끝노르인들의 수력성 제고의 한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김영삼 선생은 그후 끝노르 집행위원회의 동력부랑 겸 수력발전소 소장으로서 일하시었다.

김영삼 선생은 1946년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결정에 의하여 북한 인공공화국에 파견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김선생은 내각 직속 전기-동력 관리국 장관직에서 일하시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에 동족상잔이 벌어져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에 대하여 대폭격을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28일에 평양 중앙비행장을 대폭격하여 4월 1일에 수력발전소를 대폭격하였다. 그런데 유엔 비행기들은 수력발전소 건설을 동격하여 파괴할것이 아니라 평양 비행장소설과 고압선 등이 집결된 중심도시들을 대타격할것이다.

김영삼 전기 동력 관리국장은 비폭격이 시작될수록 수력발전소에 친히 나가서 지도하시다가 동력 고압선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전기에 치워서 바쁜달리 바쁜동안 다리를 중상 당하였었다.

그후 중앙 정부명원에 임명하신 김영삼 선생은 ⁴취로
중 빠른 발은 두절당하고 다리는 완치되어 약 3개월이
후 복히 다시 자기 동행에서 일하시었다.

조선 동쪽상관이 시작되어 유엔군의 복환에 대한
행동격이 아주 심하여 지사 평양은 성환집이란 하나
없고, 겨우 평안북도에서 거리나 찾아볼수있는 빈허전어
피고 알았다 어린 평안에서 평양에 살고있던 간
북가족들은 전부나 길은 산골짜기나 그랄리 아니면 동
만족을 후회하여 갔다. 이 당시 김영삼의 가정도
북인 박인희에게는 2달병레 아들화⁴를 데리고 풍족
할뿐 아니라 후회하여 가서 개냈다.

조선 전쟁은 3년간이나 계속되어도 전선은 맨처음
전쟁이 개시된 38북근에 공고히 정립되어 있고 남⁴이
프레어를 들어가는 농민생활은 농사로 할수없었고 공장제
조수, 상업이 다 파괴된 원인은 매일같이 빈궁하여 갈
뿐이었으나, 유엔군 비행기들의 폭격은 매일같이 심
하여 가고, 무엇이나 유익이 있는 물건들에 대한
기총소사로 더욱나 심하여 농민들의 아전장업⁴로 할수
없었다.

개성에서도 정전단판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1953년
6월 28일 즉 정전조인을 알린 한달전에 평양
보란봉 지하극장에서 중⁴정부 간담회의가 진행
되겠던바 김영삼 선생도 그 회의에 참가하시고
금방 졸업주에 나서자 지나가던 적기 한대가 기총

5.
소사하는 그 한 환에 풍상 당하여 병원에까지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시였다.

김영삼 선생은 밤어막 세상을 하직할시 북촌초라하하
보시리 못하고 가까운 천구들과 같이 일하던 직원들의 손에
안겨 운명하시였다.

이후 일찌월어 지누라 권권이 비록 되어, 이곳에 러난
값던 평양시민 다수는 집어야 앓건 없건 평양에 뭉어
들어 호굴박을 치고 살기 시작하였다.

이때에야 김영삼 선생의 가족은 평양에 들어와 강예복
제사를 지내며, 애절한 눈물로 애통해하러
였다.

김영삼 선생의 가족은 김영삼 선생의 사후 조원생
제사를 지내던 1955년에 노련 우르베코란에 귀국
하여, 김영삼 선생의 6월례의 감사품을 받아 악어
들로 잘 장식하여 사회에 진출하고 밝인히 사문으로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995년에 세상을 떠났다.

2000년 2월 20일 강예복